**약0112 Note**

**◆생명의 관(冠) / 안젤리카 간증에서**

지옥에 대하여 많이 얘기했음으로 이게 제가 본 천국에 대해 나누겠습니다.

예수님이 말씀 하시기를 “내 딸아, 이제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보여 주겠다.”

우리는 터널을 지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. 우리는 갑자기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

나는 더 이상 어둠, 육체적 고통, 지옥의 불길을 보지 못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 딸아 나의 영광을 보여 주겠다.”

그러고 나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곧 우리는 금으로 쓰인 거대한 문구가 붙여 있는 문에 도착 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시길,

요1009. 내가 문이니라, 나를 통해 만일 어떤 이가 들어가면, 그는 구원되느니라, 또 들어가고 나오며, 목초지(노메:목장,풀 뜯기기,부패의 파급,음식,목초지,먹다,풀을 뜯기다)를 발견하느니라.

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문은 열렸고 우리는 들어갔습니다.

나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 (계 7:11-12)

우리는 계속해서 걷고 있었고 나는 시작은 볼 수 있으나 끝을 볼 수 없는 식탁에 다가갔습니다(계 10:9).

나는 하나의 큰 옥좌와 수천 개의 의자에 둘려 쌓여 있는 작은 왕좌를 보았습니다.

모든 의자들은 면류관과 함께 의복이 놓여 있었습니다.

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길

“내 딸아, 네가 거기서 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이니라” (계시록 2:10)

예수께서 말씀하시길,

“보아라 내 딸아, 이것이 내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다.”

나는 금으로 장식된 하얀 식탁보에 덮혀진 식탁을 보았습니다.

거기에는 접시들과 잔들과 과일이 있었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었습니다.

정말 아름다웠습니다. 식탁의 중앙에는 아주 큰 화병이 놓여 있었고

저녁식사를 위해 포도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

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 딸아 나의 교회의 도착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.